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7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오답률 예측 | | 해당 문항 | |
|--------|-----|-------|--|
| 오답률 5위 | 38% | 29번 | (독서 : 인문) - 지문 내용과 <보기>의 이론 비교 |
| 오답률 4위 | 40% | 18번 |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 연결 및 세부 추론 |
| 오답률 3위 | 48% | 39번 |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
| 오답률 2위 | 61% | 40번 |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
| 오답률 1위 | 72% | 19번 |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

[문학] 현대시 : 김용택, '섬진강1' /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장경전'

[문법] 13번, 14번, 15번

[독서] 사회 지문 : 법률을 통한 기본권 제한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8%) 예측] : 독서-인문 29번 문항

| [지문 내용과 <보기>의 이론 비교] | |
|----------------------|---|
| [Killer-Point] | <p>29.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p> <p>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두 가지 원운동, 즉 자체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자전 운동과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공전 운동을 한다는 지동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어쩌서 하늘로 던져 올린 돌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를 향해 떨어질까? 또 지구가 자전하는 동시에 공전을 한다면 돌은 왜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p> <p>흙으로 이루어진 지구는 행성이나 태양 같은 다른 천체들처럼 본성에 따른 원운동을 한다. 그리고 무거움을 지닌 흙은 가까이에 존재하는 더 무거운 흙과 결합하여 구의 형태를 이루려는 본성을 지닌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던져 올린 돌은 두 가지 운동을 하게 된다. 하나는 돌이 본래 속해 있던 지구의 원운동과 동일한 원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와 결합하기 위한 수직 낙하 운동이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던져 올린 돌은 제자리에 떨어지게 된다.</p> </div> <p>① 지구가 다른 천체들처럼 원운동을 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구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차이점이 있군.</p> <p>②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차이점이 있군.</p> <p>③ 지구가 자체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 운동을 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차이점이 있군.</p> <p>④ 돌이 본성에 따라 원운동을 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과 물체의 자연 운동이 내부의 본성에 의해 일어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물체의 운동을 그 물체의 본성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군.</p> <p>⑤ 지구상에서 위로 던진 돌이 지구로 떨어진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과 복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오렘의 생각은 흙이 더 무거운 흙과 결합하려는 본성을 지닌다는 믿음을 낳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군.</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보기>의 내용이나, 선지 난이도 자체가 어려웠다고 보다는, 선지 판단의 태도가 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다. 5번 선지는 지문과 <보기>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선지에서 선후 관계를 추가하고 있다.</p> <p>선지의 표현을 보자. '지구상에서 위로 던진 돌이 지구로 떨어진다는 생각'이 '흙이 더 무거운 흙과 결합하려는 본성을 지닌다는 믿음'을 '낳았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때 'A가 B를 낳았다'는 것은 B가 없는 상태에서 A가 존재했다는 말과 같다.</p> <p>즉 '지구상에서 위로 던진 돌이 지구로 떨어진다는 생각' 자체는 '흙이 '더 무거운 흙'과 결합하려는 본성을 지닌다는 것을 떠올리기 '전'에 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내용을 보면, 코페르니쿠스는 '흙'의 본성을 통해서 '돌'의 '두 가지 운동'을 설명한다. 즉, 코페르니쿠스가 돌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흙의 본성'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의 운동'에 대한 생각이 '흙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낳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문에 따르면 오렘 역시 흙이 더 무거운 흙과 결합하려는 본성을 지닌다는 가정을 먼저 한 후, 그 때문에 복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p> </div> |

[오답률 4위(40%) 예측] : 독서-사회 18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 연결 및 세부 추론]

1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법은 현실적인 여건상 위헌적인 평등권 침해가 불가피한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우리 법에서 평등권은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③ 우리 법에서 평등권은 상업 광고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비해 그 보호 가치가 작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 ④ 우리 법은 현실적인 여건상 차별이 불가피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위헌적인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우리 법은 현실적인 여건상 차별이 불가피한 영역에 적용되는, 상대적 평등을 훼손하는 법률을 위헌적인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 ④]

[Killer-Point]

1번부터 3번 선지까지 지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4, 5번 선지는 헷갈렸을 수 있다. 선지 두 개가 남았는데 둘 다 지워지지 않을 때, 당황하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판단 범위를 좁혀나가야 한다.

4번 선지와 5번 선지는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과 '상대적 평등을 훼손하는 법률'. 우리는 이 두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선지 전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좁혀 놓은 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도 판단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지문에서 말하는 '평등권'과 '상대적 평등'의 개념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법은 '평등권'을 '상대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상대적 평등'이 성립하면 '평등권'이 지켜진 것이 되고, '상대적 평등'이 성립하지 않으면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럼 이제 '상대적 평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상대적 평등'은 쉽게 말해서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해도 그 차별이 '합리적 차별'이라면 '상대적 평등'은 성립하는 것이 되고, '평등권'이 지켜진 것이 된다.

이제 선지로 가보자. 4번 선지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5번 선지에서는 '상대적 평등을 훼손하는 법률'을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상대적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의 발생은, '상대적 평등'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즉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평등을 훼손하는 법률'은 어떨까? 판단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맥은 같다. 우리 헌법에서 '평등권'이 침해되려면 '상대적 평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상대적 평등을 훼손하는 법률'이라면, 이 법률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로 판단될 것이다.

[유사한 사례] - 2013년도 3월 교육청 B형

우리는 노동을 제공하면 으레 그에 합당한 크기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 만족을 경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만족을 경험한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보상의 크기가 합당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크게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기업의 이윤에서 임금으로 얼마를 배분받느냐가 '배분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면, 얼마의 임금을 배분받을지 결정되기까지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절차 공정성'의 문제이다.

배분 공정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업적 등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보상이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이 받은 보상과 비교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성 이론을 주창했던 아담스는 다음의 산술식을 활용해 설명했다.

$$\frac{\text{산출}(P)}{\text{투입}(P)} = \frac{\text{산출}(O)}{\text{투입}(O)} \quad (P=\text{자신}, O=\text{타인})$$

이 산술식에서 '투입'은 개인의 노력, 업적, 기술, 연령, 교육, 경험 등을 가리키며, '산출'은 조직이 개인에게 주는 보상으로 임금, 후생 복지, 승진, 지위, 권력 등을 포함한다. 아담스는 개인이 이러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해 자신이 배분받은 것에 만족하는 반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해 불만이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공정성과 불공정성의 지각은 개인의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배분 공정성은 '내부 공정성'과 '외부 공정성'으로 구분된다. 내부 공정성은 조직 내부의 공정성으로 조직의 직무·직능·근속 및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제도를 잘 갖춤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다. 내부 공정성의 확보는 개인의 만족과 그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 공정성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이 다른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에 비해 공정한가에 관한 것이다. 외부 공정성의 확보는 조직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관한 ㉠절차 공정성은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 수준의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나 이의 제기 절차가 있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배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배분을 통해 보상을 받는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면 절차 공정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9.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 개인의 주관에 많이 개입된다는 말로군.
- ② '배분 공정성' 없이 '절차 공정성'만 확보되면, '공정성' 확보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말로군.
- ③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배분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로군.
- ④ '배분 공정성'이 '절차 공정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는 말로군.
- ⑤ 배분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로군.

[정답 : ㉠]

[오답률 3위(약 48%) 예측] : 독서-기술 39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39. 밑글에 제시된 방법과 규칙에 따라 <보기>의 데이터를 허프만 부호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호 집합 {P, Q, R, S, T}에 있는 기호들로만 조합된 데이터에서 각 기호의 발생 확률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 | | | | |
|-------|-----|-----|------|-----|------|
| 기호 | P | Q | R | S | T |
| 발생 확률 | 0.4 | 0.1 | 0.25 | 0.2 | 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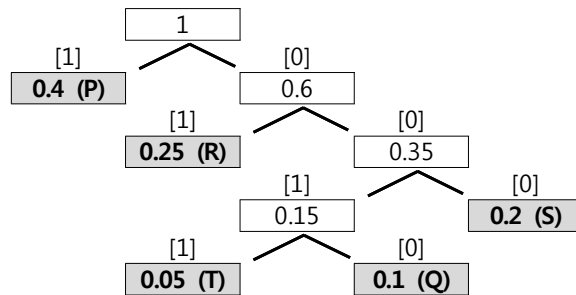
- ① QR은 부호 001001로 변환되겠군.
- ② 1로 시작되는 부호를 할당받는 기호는 한 개이겠군.
- ③ 기호에 할당되는 부호의 평균 비트 수는 3보다 작겠군.
- ④ T와 Q에 각각 할당되는 부호의 비트 수는 동일하겠군.
- ⑤ RS를 변환한 부호와 TP를 변환한 부호는 비트 수가 서로 다르겠군.

[정답 : ⑤]

3번 선지를 제외하고는 직접 트리를 그려놓고 보는 것이 훨씬 빠르다. 직접 그려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지문에 제시된 <그림>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된다. 다만 그릴 때 왼쪽, 오른쪽 구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1번 선지나 2번 선지를 찍은 학생들은 왼쪽, 오른쪽 노드 구분이 안 났을 가능성이 높다.

[Killer-Point]

직접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그려진다.



R에는 2개, S에는 3개의 비트가 할당되므로 RS를 변환한 부호의 비트 수는 5이다. T에는 4개, P에는 1개의 비트가 할당되므로 TP를 변환한 부호의 비트 수도 5이다.

사실 5번 선지보다는 3번 선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3번 선지는 직접 계산을 해도 답을 구할 수 있는 선지지만, 복잡한 계산 없이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근거로 해도 판단할 수 있는 선지이다. 바로 '보통 문자 데이터는 아스키 부호처럼 고정 길이 부호로 변환할 때보다 허프만 부호로 변환할 때 더 적은 비트 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문장이다.

<보기>의 상황에서 부호화를 해야 하는 기호의 수는 5개이다. 따라서 2개의 비트를 가지고는 부호화할 수가 없다. 최소 3개의 비트 수를 가진 부호를 각 기호에 할당해야 한다. 즉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3이 된다. 허프만 부호로 변환하면 고정 길이 부호로 변환할 때보다 평균 비트 수를 낮출 수 있다고 했으므로, <보기>의 데이터 역시 허프만 부호로 변환하면 평균 비트 수가 3보다 낮아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 - 2019학년도 7월 교육청

온라인 전자 상거래나 공인 인증이 일상화되면서 보안을 위해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주고받는 암호통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암호통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거나 이를 다시 원래의 메시지로 복호화하는 데 필요한 키를 암호통신의 대상자인 송·수신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주고받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암호통신은 암호화나 복호화에 필요한 키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대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칭키 방식은 메시지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송신자와 수신자만 아는 비밀키를 미리 분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암호통신을 시도할 때마다 상대에 따라 새로운 비밀키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반해 공개키 방식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방식이다. 수신자가 미리 생성하여 공개한 공개키(public key)로 송신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수신자는 공개키에 대응하여 생성한,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키(private key)를 이용하여 복호화한다. 공개키 방식은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 없고 통신 상대에 따라 비밀키를 바꿀 필요도 없어 대칭키 방식에 비해 보안에 유리하다.

대표적인 공개키 방식인 RSA 알고리즘은 큰 소수의 곱과 추가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정수의 소인수 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기반하여 한 쌍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한다.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하여 대칭키 방식에 비해 암호화나 복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암호화된 문서가 유출되어도 현재의 컴퓨터 성능으로는 비밀키를 유추하는 데 비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밀키를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컴퓨터 연산 속도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 복잡한 연산 과정을 기반으로 한 공개키 방식의 암호 체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도청으로부터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에서는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갖기 위해 양자의 종류 중 하나인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다. 원자나 분자 단위 이하의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 역학에서 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광자 하나하나에 정보를 실어 보내는 양자암호통신에서 단일광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만을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도청자가 단일광자 자체를 가로챈다 하더라도 수신자에게 가로챈 광자와 동일한 상태의 광자를 보내야만 도청 사실을 숨길 수 있는데 여러 상태를 동시에 지니는 '중첩'이라는 양자의 특성 때문에 단일광자의 원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 보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양자 암호통신은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

양자암호통신의 대표적인 키 분배 기술로는 단일광자의 편광상태에 정보를 실을 수 있는 BB84 프로토콜*을 들 수 있다. 자연 상태의 빛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진동 방향에 따라 빛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를 이용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빛을 '편광'이라고 하며, 편광을 만들 때 이용하는 필터를 '편광필터'라고 한다. 그런데 편광된 광자 또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중첩'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편광필터를 통과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의 경우 대각(↗)·역대각(↘) 편광 특성도 지니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편광필터를 통과한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 또한 수직·수평 편광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 편광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수직이나 수평 편광으로 100% 측정되지만,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 편광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대각 혹은 역대각 편광으로 잘못 측정된다.

이러한 편광의 중첩 특성이 BB84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자.

| | | | | | | |
|----------------|---|----|----|----|----|----|
| (a) 송신자의 비트 정보 | 0 | 1 | 1 | 0 | 1 | 0 |
| (b) 송신자의 편광필터 | + | + | × | + | × | × |
| (c) 송신자의 편광 신호 | ↔ | ↑↓ | ↘↗ | ↔ | ↘↗ | ↗↘ |
| (d) 수신자의 편광필터 | + | + | × | × | + | × |
| (e) 수신자의 측정 신호 | ↔ | × | ↘↗ | ↗↘ | ↑↓ | ↗↘ |
| (f) 비밀키 공유 | 0 | | 1 | | | 0 |

※ '×'는 누락된 광자.

BB84 프로토콜은 먼저 위 <표>의 (a)처럼 송신자가 무작위로 비트 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BB84 프로토콜은 수직 편광과 역대각 편광은 '1'이라는 비트 정보로, 수평 편광과 대각 편광은 '0'이라는 비트 정보로 표시하기로 약속되어 있어 (b)처럼 송신자가 **+** 편광필터와 **×** 편광필터를 무작위로 선정하면 (c)와 같은 편광 신호들이 생성된다. 수신자는 (c)에서 생성된 편광 신호들이 어떤 편광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d)처럼 스스로 무작위로 편광필터를 선택하여 (e)와 같이 편광된 광자를 측정한다. 이때 전송 과정에서 잡음 등으로 인해 누락된 광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락된 광자는 측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송·수신자는 공개 채널에서 자신들이 어떤 편광필터를 어떤 순서로 사용했는지 서로 공유하면 (f)와 같이 동일한 편광필터를 사용한 '010'이라는 비트 정보만 걸러낼 수 있어 비밀키로 사용하는 측정값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

* 프로토콜 : 통신 규약.

37. BB84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송신자와 수신자가 <보기>와 같이 정보를 주고받았다. <보기>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비밀키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송신자의 비트 정보 생성 및 편광된 광자 전송

| | | | | | | | | | | |
|---------|---|---|---|---|---|---|---|---|---|---|
| 비트 정보 | 0 | 1 | 0 | 0 | 1 | 1 | 1 | 0 | 1 | 0 |
| 편광필터 정보 | 0 | 1 | 1 | 0 | 1 | 0 | 1 | 1 | 1 | 0 |
| 편광 신호 | ↔ | ↘ | ↗ | ↔ | ↘ | ↕ | ↘ | ↗ | ↘ | ↔ |

○ 수신자의 광자 측정

| | | | | | | | | | | |
|---------|---|---|---|---|---|---|---|---|---|---|
| 편광필터 정보 | 1 | 1 | 0 | 1 | 1 | 0 | 0 | 1 | 1 | 1 |
| 측정한 신호 | ↘ | ↘ | ↕ | ↘ | × | ↕ | ↔ | ↗ | ↘ | ↗ |

* **+** 편광필터 : 0, **×** 편광필터 : 1, 누락된 광자 : ×

- ① 1011 ② 1100 ③ 1101 ④ 11011 ⑤ 11101

[정답 : ③]

윗글에는 송·수신자가 동일하게 사용한 편광필터의 비트 정보를 공유하면 비밀키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과정에서 누락된 광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편광필터를 사용한 2, 6, 8, 9번째 비트 정보에 해당하는 '1101'을 비밀키로 공유할 수 있다.

[오답률 2위(약 61%) 예측] : 독서-기술 40번 문항

| | |
|-----------------------------|--|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 |
| [Killer-Point] | <p>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반복 길이 부호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영상 데이터는 이미지의 기본 단위인 화소의 색상을 나타내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만약 하얀색과 검은색인 두 가지 색상으로만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의 특정 행의 화소들이 WWWWBWWB로 배열되어 있다면, 이 행의 영상 데이터는 4W1B3W2B로 기호의 개수를 줄여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압축 방식이 반복 길이 부호화이다. 이 부호화는 문자나 숫자가 없는 그래픽 이미지처럼 동일한 색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데이터를 정보의 손실 없이 압축하는 데 유용하다. 반복 길이 부호화에 의해 압축된 영상 데이터는 아스키 부호 같은 고정 길이 부호로 변환되어 처리되기도 하지만, 허프만 부호 같은 가변 길이 부호로 압축·변환되어 처리되기도 한다. (단, W는 하얀색을, B는 검은색을 나타내는 기호이다.)</p> </div> <p>① WBBWW는 반복 길이 부호화에 의한 데이터 압축이 불가능하다. ② 4W1B3W2B는 반복 길이 부호화에 의해 기호가 2개 줄어든 것이다. ③ 영상 데이터를 반복 길이 부호화와 허프만 부호화로 연속해서 압축해도 정보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영문 문서는 문자나 숫자가 없는 그래픽 이미지에 비해 반복 길이 부호화에 의해 기호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더 작을 것이다. ⑤ WWWWBWWB는 곧바로 아스키 부호로 변환할 때보다 반복 길이 부호화를 거쳐 아스키 부호로 변환할 때 부호의 평균 비트 수가 더 적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⑤]</p> |
| | <p>29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지 표현을 잘 봐야 했다. 5번 선지에서 묻는 것은 '총 비트 수'가 아니라 '평균 비트 수'이다.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전자는 선지에서의 집중력을 더 길러야 하고, 후자는 독해력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p> <p>지문에 따르면 '아스키 부호'는 하나의 기호에 7개의 비트를 가진 부호를 할당한다. 따라서 WWWWBWWB를 곧바로 아스키 부호로 변환하든 일단 반복 길이 부호화로 변환한 후 (4W1B3W2B) 아스키 부호로 변환하든 최종적으로 모든 기호는 7개의 비트를 가진 부호를 할당받는다. 따라서 두 경우에 부호의 평균 비트 수는 7개로 동일하다.</p> <p>반복 길이 부호화로 변환했을 때 줄어드는 것은 평균 비트 수가 아니라 총 비트 수이다. 반복 길이 부호화로 먼저 변환을 하게 되면 기호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p> |
| | <p>[유사한 기출] - 2018학년도 수능</p> <p>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p> |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그 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평균 정보량 :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①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 ②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흐림'은 '01001001'로 바뀌겠군.
- ③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수신하였다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겠군.
- ④ 날씨 '비'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하는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군.
- ⑤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부호를 전송할 경우,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흐림'으로 판단하겠군.

【정답 : ④】

[오답률 1위(약 72%) 예측] : 독서-사회 19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기 > —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F를 제한하는 법률 A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정량화하여 나타낸 가상의 표이다.

| | 목적 달성 기여도 | 재정 지출 | 기본권 E의 침해 정도 | 기본권 F의 침해 정도 |
|------|--------------|-------|-----------------|-----------------|
| 법률 A | 80 | 20 | 0 | 30 |
| 대안 B | 70 | 20 | 0 | 10 |
| 대안 C | 100 | 20 | 30 | 0 |

- ① 법률 A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과잉 금지 원칙에는 위배될 수 있겠군.
- ② 법률 A는 목적의 정당성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는 위배될 수 있겠군.
- ③ 법률 A에 비해 대안 B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더 높은 방법으로 판단되겠군.
- ④ 법률 A와 대안 C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진 방법으로 판단되겠군.
- ⑤ 법률 A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안 C가 기본권 E를 침해하는 정도는 고려 사항이 아니겠군.

[정답 : ①]

[Killer-Point]

지문에서 판단 기준에 대한 정보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전부 정리하는 것은 힘들다. 결국 선지를 기반으로 하나씩 지문에서 찾아가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각 원칙(목적의 정당성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효율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답이 1번이라, 태도가 잘 잡혀 있었던 학생들은 1번에서만 조금 고생하고 넘어갔을 것이고, 태도가 잘 잡혀 있지 않았던 학생들은 나머지 선지들을 다 보느라 시간 소비가 꽤 컸을 것이다.

1번 선지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한다. 두 판단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일단 하나씩 판단해보자. 먼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 원칙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잡을 때는 3문단에서 근거를 끌어왔어야 한다. 2문단에 안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최소성 원칙의 검토 순서는 제일 먼저 '입법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한다. <보기>의 상황은 '입법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입법 대안'과 '심사 대상 법률'의 효율성이 동일한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속도는 감속이다. 급하게 읽으면 기준을 놓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효율성의 동일 여부를 따지는 것에는 아래 3개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 [1] 추가적인 대가(=재정 지출 증가 or 다른 기본권 침해)가 필요한가?
- [2]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실제로' 동일한가?
- [3]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누가 더 큰가?

이 3가지를 잡으면 바로 판단이 가능한데, 이걸 잡는 게 꽤 까다롭다. 특별한 방법은 없다. 한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제 하나씩 판단을 해보자. 법률 A에 대한 입법 대안은 B, C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대안 C는 '추가적인 대가[=다른 기본권(=기본권 E) 침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안에서 탈락한다.

이제 목적 달성 기여도가 실제로도 동일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대안 B는 대안 A에 비해 목적 달성 기여도가 낮다. 여기서 대안 B가 탈락하게 되면서 법률 A에 대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은 부합하게 된다.

다음은 '과잉 금지 원칙'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3문단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느냐 여부가 또 난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판단해보자. 대안 B는 '목적 달성 기여 정도'가 법률 A보다 낮다. 하지만,

1. 추가적 대가가 필요하지 않고
2.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더 낮으므로

3문단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따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사 대상 법률인 법률 A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법익의 균형성'은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 A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법률 A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동화의 유형

| | |
|----------|---|
| 순행 동화 | 앞의 음운의 뒤의 음운을 바꾸는 동화 |
| 역행 동화 |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을 바꾸는 동화 |
| 조음 방법 동화 | 바뀌는 음운의 조음 방법이 바뀌는 동화로 비음화, 유음화 등이 있다. |
| 조음 위치 동화 | 바뀌는 음운의 조음 위치가 바뀌는 동화로 양순음화, 연구개음화 등이 있다. |

1. 교체

(1) 비음화(교체 / 동화 /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

-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 파열음 | 환경(비음) | 결과 | 예시 |
|-----|--------|-----|------------------------------------|
| ㄱ | ㄴ, ㅁ 앞 | [ㅇ] | 국물[궁물], 낚는다[낙는다→낭는다], 부엌문[부억문→부엉문] |
| ㄷ | ㄴ, ㅁ 앞 | [ㄴ] | 닫는[단는], 걸모양[견모양→건모양], 쫓는[죃는→쫓는] |
| ㅂ | ㄴ, ㅁ 앞 | [ㅁ] | 밥물[밤물], 앞니[압니→암니], 값만[갑만→감만] |

-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 유음 | 환경 | 결과 | 예시 |
|----|------------|-----|---|
| ㄹ | ㄹ 이외의 자음 뒤 | [ㄴ] |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

(2) 유음화(교체 / 동화 /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 비유 | 환경 | 결과 | 예시 |
|----|---------|-----|--|
| ㄴ | ㄹ 앞이나 뒤 | [ㄹ] |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뚫는 → [뚫는 → 뚫른] |

(3)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ㄸ)'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 받침 | 환경 | 결과 | 예시 |
|------|---------------------------|--------|---|
| ㄷ, ㅌ |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 [ㅈ, ㅊ] | 굳이 → [구지], 밭이 → [바치],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 |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닫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4) 된소리되기(교체)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는 매우 생산적인 음운 변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
|--|
| <p>ㄱ, ㄷ, ㅂ, ㅅ, ㅈ → [ㄱ, ㄷ, ㅂ, ㅅ, ㅈ] / ①, ②, ③</p> <p>① ㄱ, ㄷ, ㅂ 뒤</p> <p>예) 국밥 → [국꺾], 꽃병 → [꽃빙], 값도 → [갑또]</p> <p>-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ㄱ, ㄷ, ㅂ'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p> <p>② 어간의 끝 자음 ㄴ, ㅁ 뒤</p> <p>예) (동생을) 안고 → [안꼬], (신발을) 신고 → [신꼬], (의자에) 앉고 → [안꼬]</p> <p>-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의 'ㄴ, ㅁ'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p> <p>- 체언의 끝 자음 'ㄴ, ㅁ'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신고(申告)[신고]</p> <p>- 피동, 사동 접사 '-가'의 첫 자음은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안기대[안기대]: 안 + -가 + -다</p> <p>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p> <p>예) 할 것을 → [할꺼슬], 갈 데가 → [갈떼가], 만날 사람 → [만날사람]</p> <p>-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p> <p>- '-ㄹ걸', '-ㄹ밖에', '-ㄹ게', '-ㄹ수록', '-ㄹ세라', '-ㄹ지라도' 등은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형태로, 발음상으로 된소리되기를 겪는다.</p> <p>④ ㄷ, ㅅ, ㅈ → [ㄷ, ㅅ, ㅈ]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p> <p>예) 갈등 → [갈똥], 말살 → [말쌀], 열정 → [열똥]</p> |
|--|

2. 탈락

(1) 반모음 탈락 : 센입천장소리(ㅅ, ㅆ, ㅈ) 뒤에서 반모음 ‘ㅣ’가 탈락하는 현상

· 예) 지+어 → 저 → [저], 찌+어서 → 쨌 → [찌], 다치+어 → 다쳐 → [다쳐]

3. 축약

(1)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ㅅ → [ㅋ, ㅌ, ㅍ, ㅊ] 예) 놓고 → [노코], 앉던 → [안턴], 싫지 → [실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예) 낙하산 → [나카산], 매향 → [마텃],

값 흥정 → [가퐁정]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선택지 해설]

| | | |
|---|-----|-------------------------------|
| ㉠ | 꽃이 | 꽃이 → 연음 [꼬치] |
| ㉡ | 꽃길 | 꽃길 → [꽃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
| ㉢ | 꽃혀 | 꽃혀 → [꼬쳐] → [꼬쳐] 거센소리되기 |
| ㉣ | 끝이 | 끝이 → [꼬치] 구개음화 |
| ㉤ | 끝나면 | 끝나면 → [끈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13. ㉤

정답해설 답은 ㉤야. ㉤의 ‘끝나면’에서는 우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끝나면’이 일어나고 그 후, 다시 교체인 비음화가 일어나서 [끈나면]이 돼. 이때, 비음화는 앞 음절 종성의 ‘윗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인 ‘ㄷ’이 뒤 음절 초성의 ‘윗잇몸소리이자 비음’인 ‘ㄴ’과 만나서 ‘윗잇몸소리이자 비음’인 ‘ㄴ’으로 바뀌어. 즉 ‘ㄷ’은 인접한 ‘ㄴ’의 영향을 받아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조음 방법이 ‘ㄴ’과 같게 바뀌고 있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꽃이[꼬치]’에서 앞 음절 종성의 ‘ㄷ’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고 있어. ‘연음’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분류되는 음운의 변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자, 그럼 연음이 되는 상황을 알고 넘어가자. 연음은 앞 음절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일어나. ‘꽃이’에서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며, 주격조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해. 그러니까 ‘ㄷ’이 바로 연음되는 거야.

②를 살펴보자. ‘꽃길[꽃길]’에서는 우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꽃길’이 된 후, 안울림소리인 ‘ㄷ’과 안울림소리인 ‘ㄱ’이 만나서 뒤 음절 초성 ‘ㄱ’이 된소리 ‘ㄲ’이 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그러므로 음운의 첨가는 나타나지 않아.

③을 살펴보자. ‘꽃혀[꼬쳐]’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ㄷ’과 뒤 음절 초성의 ‘ㅎ’이 만나 거센소리인 ‘ㅊ’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이 일어나고 있어. 그 결과 ‘꼬쳐’가 돼. 그 후, ‘ㅊ’이 ‘반모음 ㅣ + ㄷ’로 분석되는 ‘ㅊ’과 만나서 반모음 ‘ㅣ’가 탈락되고 있어. 이때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1’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모음 ‘ㅣ’가 탈락하는 이유는 거센소리인 ‘ㅊ’와 반모음 ‘ㅣ’의 위치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야.

④를 살펴보자. ‘끝이’에서는 앞 음절의 종성 ‘ㅌ’와 뒤 음절의 모음 ‘ㅣ’가 만나 ‘윗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인 ‘ㅌ’가 ‘센입천장소리이자 파찰음’인 ‘ㄷ’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때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 ‘끝이’의 음운의 개수는 ‘ㄴ, ㅡ, ㅌ, ㅣ’ 총 4개이며, 구개음화가 일어난 후 음운의 개수도 ‘ㄴ, ㅡ, ㄷ, ㅣ’로 4개야. 즉 음운의 개수에 변화는 없어.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형태소]

- 개념 :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종류
 - 자립 형태소 :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혼자 설 수 있는 형태소
 - 의존 형태소 :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 실질 형태소 : 대상이나 동작, 상태의 실제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예) 승모는 잘 된 밥을 매우 빠르게 먹었다.

| 예) 승모는 잘 된 밥을 매우 빠르게 먹었다. | | |
|--|---------------------------------------|--------------------------------|
| 자립성 유무 | 자립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 의존 형태소 (용언의 어간, 어미, 조사, 접사) |
| 의미의 성격 | | |
| 실질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의 어간, 관형사, 부사, 감탄사) | 승모, 잘, 밥, 매우 | 되-, 빠르-, 먹- |
|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 | 는, -ㄴ, 을, -게, -었-, -다 |

[선택지 해설]

14. ㉔

| 아버지/는/ 오늘/ 집/에/ 일찍/ 오/시/기/ 어렵/다. | |
|----------------------------------|----------------------------|
| 자립 형태소 | 아버지, 오늘, 집, 일찍 |
| 의존 형태소 | 는, 에, 오-, -시-, -기, 어렵-, -다 |
| 실질 형태소 | 아버지, 오늘, 집, 일찍, 오-, 어렵- |
| 형식 형태소 | 는, 에, -시-, -기, -다 |

정답해설 답은 ㉔야. 헛갈리기 쉬운 것들 위주로 설명할게. 먼저, 위의 문장에서 ‘는’과 ‘에’는 조사야.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해당 체언의 문장 성분을 정하거나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해. 이때 조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형식 형태소야. 동시에 체언에 붙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이기도 해.

다음으로 ‘오-’와 ‘어렵-’은 각각 동사와 형용사인 용언의 어간이야. 용언에는 어간과 어미가 있지. 용언이 ‘먹다/먹니/먹자/먹어라’와 같이 형태가 바뀌는 걸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먹-’과 같은 부분을 어간, 변하는 ‘-다’ 부분을 어미라고 해. 그럼 ‘오다’와 ‘어렵다’에서 ‘오-’와 ‘어렵-’이 어간인 걸 알겠지. 이 어간 부분은 어근(단어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과 동일하기도 하고 어근과 접사를 함께 포함하기도 해. 하지만 ‘오다’와 ‘어렵다’에서 어간인 ‘오-’, ‘어렵-’은 어간이자 어근 부분으로 단어의 중심적 의미가 있어. 그러므로 실질 형태소지. 하지만, 어간은 어미 부분 없이 사용될 수는 없어. 그러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해.

마지막으로 ‘-시-’, ‘-기-’, ‘-다’ 부분은 어미 부분이야. 이들은 모두 ‘오다’, ‘어렵다’에서 ‘다’ 부분에 해당해. 특히 ‘오다’에서 ‘다’가 ‘-시-’와 ‘-기-’로 바뀐 것을 보자. 어미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다시 나눌 수 있어. 어말어미는 단어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오는 부분으로 ‘오시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어미는 ‘-기’이니까 이게 어말어미에 해당해. 선어말어미는 어간의 뒤, 어말어미의 앞 그러니까 어간과 어말어미 중간에 오는 어미야. ‘오시기’에서 어간 ‘오-’와 어말어미 ‘-기’ 중간에 오는 ‘-시-’가 선어말어미에 해당해. 이러한 어미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문법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형식형태소에 해당해. 동시에 반드시 어간에 붙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지.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중세와 현대의 명사형 전성 어미

(1) 중세

| 표지 | 예 |
|---------------------|--|
| ① 명사형 어미 '-음/음' | 부테 撰記 ^호 사미 글 쉰미 곧고 |
| ② 명사형 어미 '-기', '-디' | 겨집 出家 ^호 기 ^를 즐기디 말라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블씨 |

(2) 현대

| 표지 | 예 |
|------------------|--|
| ① 명사형 어미 '-(으)ㅁ' | 나는 승모가 모범생임을 안다. 우리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 확인되었다. |
| ② 명사형 어미 '-기' | 우리는 승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 |

2. 중세와 현대의 격조사

(1) 호격조사

① 중세

| 형태 | 환경 | 예시 |
|------|--------------------|--------------------------------|
| 하 | 상위자인 높임 명사 뒤 | 님금 + <u>하</u> |
| (이)여 | 상위자는 아니나 대우하여 부를 때 | 觀世音 + <u>이여</u> |
| 아/야 | 하위자나 동등한 명사 뒤 | 阿難 + <u>아</u> 長者 + <u>야</u> |

② 현대

| 형태 | 환경 | 예시 |
|-------------|---------------------------------------|--------------------------------|
| (이)여/ (이)시여 | 상위자나 대우하여 부를 때 | 대통령 + <u>이여</u> / <u>이시여</u> |
| 아/야 | 하위자나 동등한 명사 뒤, 자음의 뒤 '아', 모음 뒤 '야' | 수진 + <u>아</u> 승모 + <u>야</u> |

(2) 주격조사

① 중세

| 형태 | 환경 | 예시 |
|----|-------------------------|---------------|
| 이 |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 사름 + <u>이</u> |
| ㅣ |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 부터 + <u>ㅣ</u> |
| ∅ |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 불휘 + <u>∅</u> |

| ② 현대 | | |
|------|--------------|-----------|
| 형태 | 환경 | 예시 |
| 이 |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 기린 + 이 |
| 가 |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 승모 + 가 |
| 께서 | 높임 명사 뒤 | 할아버지 + 께서 |
| 에서 | 단체 무정 명사 뒤 | 정부 + 에서 |

[선택지 해설]

15. ④

정답해설 답은 ④야. ‘ㅅ’을 분석하면 ‘쇼 + ㅣ’이면 현대어로는 ‘소가’지. 현대어 분석을 통해 우리는 ‘ㅣ’가 주격조사임을 알 수 있어. 중세에서 주격조사는 크게 세 가지지.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이’, ㅣ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ㅣ’, ㅣ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으로 실현 돼. ‘쇼’는 ‘요’라는 모음으로 끝나. ‘요’는 ‘ㅣ(반모음) + ㅛ(단모음)’로 이루어져서 ‘ㅛ’라는 모음으로 끝남을 알 수 있어. 이에 주격조사가 ‘ㅣ’의 형태로 실현되었지. 그러므로 주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선지는 틀렸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일ㅎ기’는 현대국어에서 ‘일하기’에 해당해. 그리고 둘 다 각각 목적격조사 ‘를’과 ‘을’이 뒤에 와. 이렇게 격조사가 뒤에 오는 걸 보니 ‘일ㅎ기’와 ‘일하기’ 모두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걸 알겠어. 둘다 ‘일ㅎ-', ‘일하’라는 어간 뒤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 모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지.

②를 살펴보자. ‘님금하’는 현대어로 ‘임금이시여’야. 이는 둘 다 높임의 대상인 임금을 부르는 것으로, 중세 국어의 호격 조사 ‘하’는 현대 국어에서 ‘이시여’로 사용되고 있어. 즉 높임의 호격 조사가 중세 때는 ‘하’의 형태로, 현대에서는 ‘이시여’의 형태로 다른 거야.

③을 살펴보자. ‘깊거다’는 현대어로 ‘깊었다’야. 중세 국어에서 모르는 문법 요소가 나올 때는 현대 국어를 기반으로 해석하면 돼. 깊거다가 현대 국어로 ‘깊었다’라는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면 중세 국어의 선어말어미 ‘-거-’는 현대 국어의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처럼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참고로 중세 국어의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에는 ‘-거-’, ‘-어-’, ‘-더-’가 있었어.

⑤를 살펴보자. ‘벼기더시나’는 분석하면 ‘벼기-(어간) + -더-(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 -시-(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 -나(관형사형 전성 어미) 이(체언)+ ∅(주격조사)’이며, 이는 현대어로 ‘우기시던 이가’야. 즉 ‘벼기더신’이 ‘우기시던’에 해당하는 거야. 중세 때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 순서로 사용되었다면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더-’의 순서대로 사용되었어. 즉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사용되는 순서가 중세와 현대에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시 [31~33번 지문] [김용택, ‘섬진강1’]

“살 같은 자운꽃 2리미 이어 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이름을 붙이다 죽어 그늘린 이라 흰하게 꽃도 달아 준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298p) #사용설명서(298p)

[작품 ‘한 눈에 보기’]

[EBS 작품 풀이]

이 작품은 섬진강 변 마을을 둘러싼 남도 지방 민중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연작시이다. **소외된 존재로 살아** **가지만 소박하고 건강한 민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부정적인 세력이 결코 민중의 연대감이나 건강한 생명력을 위협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가문 섬진강’은 **자연물의 모습을 넘어서서 민중의 결핍된 삶을 드러내는 동시에, 민중적 연대의 힘과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섬진강 변의 모습을 통해, 후반부에서는 힘차고 호방한 기세의 섬진강과 산맥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

[tip] 강을 바라보는 태도

강을 시적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에서 시적화자는 가만히 선 채 움직이는 강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곤 하는데 본 작품에서 시적화자는 그 강물을 직접 ‘따라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이것은 **화자가 섬진강을 자신의 삶과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 삶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주제 : 민중의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삶

[작품 구조]

소박한 민중의 모습

해 저무는 강변,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

민중의 연대감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영산강과
섬진강의 합일),
지리산과 무등산의
화합

부정적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

→ 어디 몇 놈,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이 아님.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이 시의 화자는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섬진강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시에서 섬진강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거나, 고통받거나 소외된 민중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또 정감이 넘치는 민중으로,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민중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범’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 가도 퍼 가도 전라도 싹뿔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tip] 가문 섬진강에서도 ~ 끊기지 않고

커다란 물결이 아니다. 싹뿔줄 같은 아주 얇은 물결이지만 끊기지 않고 흐르는 모습은 민중의 저력을 잘 드러내 보인다.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 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EBS 확인하기] 꽃과 풀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은 소박하고 보잘것없지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민중의 모습을 비유했다고 볼 수 있다.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 준다

→ 1~11행 : 섬진강 변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정경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EBS 확인하기]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남도를 휘돌아 나가는 섬진강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민중의 삶을 떠올릴 수 있다.

[tip]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에서 알 수 있듯 궁핍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얼싸안으’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버티는 민중을 형상화하고 있다.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EBS 확인하기】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는 반문은, 힘든 현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결결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EBS 확인하기】 지리산이~ 무등산이~

‘결결’ 웃는 ‘지리산’과 ‘끄덕이는’ ‘무등산’의 화답은, 남도의 자연을 대표하는 산의 모습을 의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민중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 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12~26행 : 섬진강과 산맥의 건강한 생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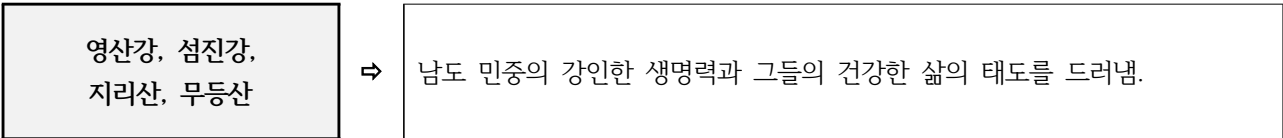
- 김용택, 「섬진강 1」 -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상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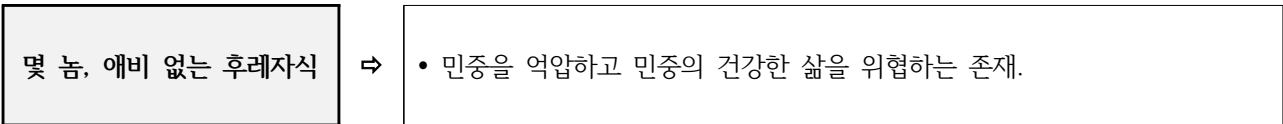
EBS 연계 POINT

[포인트1] 이 작품의 특징

- 「섬진강」의 연작시의 하나로, 남도를 대표하는 산과 강을 의인화하여 민중의 건강한 삶을 형상화함.
- 남도 민중의 소박하고 강인한 생명력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가난한 현실과 부정적인 세력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함.



[포인트2] 민중을 위협하는 부정적 존재와 부정적 존재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건강한 삶



‘어디 ~ 마를 강물이더냐고’, ‘어디 ~ 마를 강물인가를’ 등의 방식을 통해 부정적 존재가 민중의 건강한 삶을 위협할 수 없음을 강조함.

[포인트3] 섬진강 변의 풍경에 나타난 민중의 삶의 태도

| | | |
|--|---|---|
| ‘실핏줄 같은 / 개울물들이’ 모여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는 ‘가문 섬진강’의 모습 | ⇒ | 결핍되고 고단한 민중의 삶을 드러내는 동시에 같이 모여 흐르는 민중적 연대의 힘과 생명력을 의미함. |
|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의 모습 | ⇒ | 소박하고 보잘것없지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민중의 모습을 비유함. |
|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 뼈 으스러지게’ ‘얼싸안고’ 남도를 휘돌아 나가는 섬진강의 모습 | ⇒ | 섬진강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활기 넘치는 민중의 삶을 떠올릴 수 있음. |
|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반문하는 모습 | ⇒ | 힘든 현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민중의 삶을 대변함. |
| ‘껄껄’ 웃는 ‘지리산’과 ‘끄덕이는’ ‘무등산’이 화답하는 모습 | ⇒ | 남도의 자연을 대표하는 산의 모습을 의인화 한 것으로, 민중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냄. |

| EBS 핵심 문제 | |
|--------------------|---|
| <보기> | 「섬진강 1」은 섬진강 연작시의 하나로, 작가는 남도를 대표하는 산과 강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민중의 건강한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남도 민중의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가난한 현실과 부정적인 세력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 발문 |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문제 선지 | ① '실핏줄 같은 / 개울물들이' 모여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는 '가문 섬진강'의 모습은, 부정적 세력에 대한 민중의 반발감을 상징하는 것이군. ②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은 민중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소박하고 보잘것 없지만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암시하는 것이군. ③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 뚝 으스러지게' '얼싸안고' 남도를 휘돌아 나가는 섬진강의 모습에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민중의 삶을 연상할 수 있겠군. ④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는 반문은,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에도 의연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민중의 속성과 연결되겠군. ⑤ '결결' 웃는 '지리산'과 '고덕이는' '무등산'의 화답은, 남도의 자연을 대표하는 산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민중이 스스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 긍정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군. |
| 정답 해설 | ① '실핏줄 같은 / 개울물들이' 모이는 '가문 섬진강'의 모습은 결핍되고 고단한 민중의 삶을 드러내는 동시에, 같이 모여 흐르는 민중적 연대의 힘과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는 것은 이러한 '가문 섬진강'이 지닌 민중의 고단한 삶과 설움에 대한 정서로 생각할 수 있다. 부정적 세력에 대해 민중이 반발감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참고하기] EBS 'Q & A' | |
| Q. | 작품 간 유사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 A. | 9번 문항은 「오랑캐꽃」의 '햇빛'과 「섬진강」의 '해'가 시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기능하는지 비교해 보는 의도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오랑캐꽃」의 '햇빛'은 시적 대상인 오랑캐꽃이 대응해야 하는 환경으로, 화자는 이를 막아 오랑캐꽃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해'는 해가 저물어 가는 강변의 모습에 주목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해가 저물어 가는 배경이 시적 대상인 섬진강의 모습에 조응하여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 등 소박한 강변의 모습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시어가 두 작품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시를 읽는다면 그 의미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고전소설 [43~45번 지문] [작자 미상, '장경전']

“초운이 나를 위하여 이렇듯 리로움을 감내하시, 어찌 감경하지 아니하리오. 차후로 백년만이라도 마음을 상하지 말라”

#EBS 수능완성 연계 #수능완성(p116)

[작품 '한 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정도로 개입해-”

[전체 줄거리]

송나라 장진의 후예인 (가난한) 처사 장취는 천축사에 공양하고 태몽을 꾸 뒤 아들 경을 낳는다. 그러나 시절이 어지러워 장 처사는 유배되고, 장경은 걸식하다가 관노 차영의 사환(심부름 정도를 주로 하는 사람)이 된다. 장경은 기생 초운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루고,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어 왕 승상(왕패)과 소 절도사(소성운)의 딸을 부인으로 삼는다.

㉮ 장경의 세 아내와 초운

왕패(장경을 사위로 삼고자 적극적)의 딸 월영과 소성운(장경을 사위감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으나 아들들의 반대로 혼사를 진행시키진 못함)의 딸 난영(스스로의 의지로 장경에게 혼인을 요구), 모친이 신세를 졌던 진 어사의 딸 진 소저를 아내로 맞이한 장경은 고생하던 시절에 만난 초운을 첩으로 맞이하여 3처 1첩을 얻는다.

- ❶ 흥미로운 점은 3처를 두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장경의 입장과 생각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구운몽에서 양소유와 같은 인물이 보여주었던 욕망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 ❷ 3처의 성격은 작품에서 장경이 직접 언급한다.

“왕 복인은 무해무덕하고 진 복인은 어질게니와 소 씨는 천성이 편견되니 각별 조심하라.”

- ❸ 장경전은 다른 영웅소설과는 달리 주인공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고생하는 시기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자세하고 길다. 이렇게 고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보조한 것이 바로 기생 '초운'이었다.

이때 서용 등이 모반을 하므로 장경은 대원수가 되어 그들을 항복시킨 후, (그곳에서 관노로 있던) 아버지를 만나 원통함을 풀어 주고, (회군하는) 도중에 어머니도 만나고 (모친을 도운 진어사의 딸과 혼인한 후) 함께 돌아오니 황제가 장경을 우승상으로 봉한다. 그 뒤 장경의 아버지가 죽고, 황제도 죽자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

[EBS 수록부부] 이어서 어린 천자가 즉위한 후 연왕이 장 승상을 모함하여 귀양 보내자, 소 부인은 초운을 축출한다. [한수 수록부부] 연왕이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자, 장경은 탈출하여 초운을 만나고, 형주에서 군대를 일으켜 황제를 복위시킨다. 장경은 새로운 연왕이 되어 소 부인을 별하고, 초운을 정숙 왕비로 봉한다.

주제 : 영웅 장경의 시련과 그 극복 과정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생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장경전」은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영웅 소설로, 흥미를 끌기 위한 다양한 요소를 배치하고 있다. 외적이나 역적을 물리치는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주인공과 기녀의 애정담**, 장경의 **처와 첩이 된 기녀 간의 갈등** 등을 통해 독자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가가 분명히 '전벽'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운주에 있던 장경은 조력자인 소성운(소 공)과 함께 상경하여 과거에 급제한다. 장경은 원수가 되어 외적을 토벌하러 가던 중 운주를 지나게 되자 이별했던 초운을 찾는다.

원수가 분부하여 초운을 당상으로 오르라 하며, 전일을 생각하여 슬픈 마음이 간절하나 짐짓 묻기를,
 "네 이름이 근방에서 유명하기로 한번 보고자 하더니, 병세 이 같으니 무슨 병증으로 저렇듯 신고(辛苦)하뇨?"
 초운이 눈물을 흘리며 이르기를,
 "당돌히 아뢰옵기 황공하오되, 소인의 병세는 다름 아니오라, 몇 해 전에 이 고을에 장경이란 사람과 언약이 중하옵더니, 소 공이 경성으로 데려가시매, 이별 삼 년에 그리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자연 병이 났사오니, 돈는 해와 지는 달에 다만 슬픈 눈물만 흘리고 죽을 때만 기다릴 따름이로소이다."
 하거늘, 원수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감동하여 녹는 듯하나, 또 물어 이르기를,
 "네 말이 가히 헛된 말이라도. 소 공이 나와 친척이 됨으로 그 집을 익히 아나니, 장경이란 사람은 금시초문이라. 필연 다른 연고가 있도다."

초운이 놀라며 이르기를,
 "만일 이 같을진대, 소 공이 중도에 버려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었도소이다."
 하며 길게 흐느끼거늘, 원수가 능히 참지 못하여 눈물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이르기를,
 "그 병 고칠 약이 내게 있노라."
 하고 주머니에서 월귀탄*을 내어 초운을 주며 그 손을 잡고 이르기를,
 "칠 년 동고(同苦)하던 장경을 네 알소냐?"
 하니 초운이 이 말을 듣고 눈을 들어 원수를 보고, 일희일비하여 어리는 듯 취한 듯 자주 흐느껴 기절하였다가, 이윽고 정신을 정하여 원수의 소매를 잡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지라. 원수가 그 손을 잡고 위로하기를,
 "초운이 나를 위하여 이렇듯 괴로움을 감내하니, 어찌 감격하지 아니하리오. 차후로 백년해로하리니 마음을 상하지 말라."
 초운이 눈물을 거두고 이르기를,
 "소첩이 잔명을 보존하였다가 오늘날 만날 줄 어찌 뜻하였으리잇고."
 하며 묵은 병이 점점 풀리어 수일 내에 설부화용이 완연히 절대가인이라.

[중략 줄거리] 초운은 장경의 첩이 되고, 장경은 승상의 지위에 오른다. 장경이 유배를 가게 되자, 장경의 둘째 부인 소 씨는 초운을 음해하여 죽이려 한다.

각설 연왕 건성이 장경을 모함하여 내치고, 기탄없이 천자를 폐하며, 황후를 심궁에 가두고 스스로 대위에 올라, 중신을 살해하며 장경을 죽이려 하여 사람을 보내는지라.
 천자가 적소(謫所)*로 갈 새 승상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이르기를,
 "내 불명(不明)해야 장경을 멀리 보내고 이 지경을 당하니, 다투어 한하며 다투어 원하리오."
 하시더라.
 차설 장경이 황토섬에서 국사를 생각하고 한탄하더니, 일일은 한 노승이 육환장을 짊고 와 이르되,
 "이제 국사(國使)가 변복(變服)하여 그대를 잡으러 오거늘, 어찌 앉아 죽기를 기다리느뇨."
 하거늘 문득 깨달아 생각하되,
 '이 반드시 건성이 모역(謀逆)하고 나를 죽이려 함이로다.'
 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황하에 이르러 사공을 부르니, 별장이 놀라 이르기를,
 "승상은 나라 죄인이거늘 임의로 어디를 가려 하느뇨."

하며 군사를 호령하여 길을 막고 잡으려 하거늘, 승상이 대노하여 칼을 빼어 들고 이르기를,
 “내 이 칼로 남만(南蠻)과 서이(西夷)를 벤 지 오래더니, 다시 시행하리라.”
 하고 말을 마치며 별장을 베고 사공을 호령하여, 배에 올라가더니 문득 광풍이 대작하여 배를 몰아 한 곳에
 다다라, 배에서 내리니 풍경 소리가 들리는지라.
 소리를 따라 수 리를 나아가더니, 이때 취향이 절 어귀에서 나물을 캐다가 승상을 보고 반가움을 ㉠ 이기지
 못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거늘, 승상이 놀라 이르기를,
 “어떤 승이기에 사람을 놀래느냐.”
 취향이 슬피 울며 아뢰기를,
 “소비 취향을 몰라보시니잇가?”
 승상이 그제야 취향인 줄 알고 급히 묻기를,
 “어이하여 이곳에 있느냐?”
 취향 아뢰기를,
 “낭자도 이곳에 계시니 들어가시면 자연 아시리이다.”
 하고 인도하거늘, 승상이 놀라 급히 들어가니, 초운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승상을 보고 말을 못 하고 눈물만
 흘리는지라. 승상이 또한 놀라 그 연고를 물으니, 초운이 슬퍼하며 소 씨가 자신을 모함하던 사연과, 진 씨가 구
 호하던 곡절과, 절에 와 삭발한 후 해산한 말을 낱낱이 설파하거늘, 승상이 일변 물으며 일변 개탄하더라.

- 작자 미상, 「장경전」 -

* 월귀탄: 장신구의 일종.

* 적소: 유배지.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투'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 EBS 연계 POINT | |
|--------------|---|
| 해제 | <p>이 작품은 영웅의 일대기를 기술한 영웅 소설의 보편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부처에 기도하여 자식을 얻는 것과, 태몽을 통한 장경의 출생 예고는 주인공인 장경의 비범성에 대한 복선(伏線)으로 볼 수 있다. 이 복선의 기능은 관상을 통해서도 예고되고 있다. 사건의 기본적 축은 혼사의 성취와 군담적(軍談的) 소재를 통한 충(忠)의 실현에 있다. 장경은 충의 실현에 대한 보상으로 연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는 이 작품이 전형적 공명 획득의 과정을 보여 주는 영웅 소설임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주인공의 하층 체험을 특히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군담보다는 애정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갖는다.</p> |
| EBS 핵심 문제 | |
| <보기> | <p>「장경전」에서 소 씨가 초운을 모함하는 대목은 '서간'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서간은 서사적 흥미를 높이거나 새로운 사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서간은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증거물이 되어 등장인물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위기에 처한 등장인물을 구해 주기도 한다. 이와 함께 서간을 통해 작성자의 인품을 드러내거나 말로 하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p> |
| 발문 | <p><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
| 문제 선지 | <p>① ㉠: 춘향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정사운의 마음을 자극하여 정사운이 초운의 집으로 오게 되는 사건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② ㉡: 정사운이 초운에게 보낸 것으로, 소 씨의 계략대로 초운을 위기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군. ③ ㉢: 소 씨의 악행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물로,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 정사운이 초운의 집에 오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위기에 빠진 정사운을 구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 진 부인이 초운에게 보낸 것으로, 진 부인의 따뜻한 성품과 지혜로운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p> |
| 정답 해설 | <p>③ ㉢은 정사운이 초운에게 보낸 서간으로, 초운의 행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증거물로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p> |

함께 볼 지문 "비교하기, <영웅의 이야기>, 평가원 - '2015학년도 9월 A,B, 「유충결전」"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뜻밖에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기를,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무엇이냐?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천자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쭙되,

[A]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 리 밖에 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하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B]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런 말을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말하였다.

“소장이 아버지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씀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합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한다. 이후,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 뜰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이어 호산대가 떠나갈 듯 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가마에서 바삐 내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의 예로써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후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였다.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 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 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에 드문 일이다.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입이 열 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리오.”

태후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승상이 바빠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천자가 내려와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 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라오.”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장 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 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에게 물러 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불효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 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 있는가?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 왔느냐. 뉘 집 자 손이 모셔왔느냐. 충렬아, 네가 분명 살려 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리만리 호국 일당에 잡히어 죽을 줄 알았더니, 십 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갖은 고 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옥새 : 옥으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

* 향서 :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

| 문제 1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문제 선지 | ①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③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④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⑤ 전쟁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한다. |
| 정답 해설 | ④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등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 있으며, 충렬, 태자, 유심 등의 발화에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작품 전체의 시간적 배경은 중국 명나라 시대이지만, 지문에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② 지문에는 꿈속의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만 서술되어 있다. ③ 지문에는 초월적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 세계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⑤ 전쟁의 경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전쟁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
| 문제 2 |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문제 선지 | ① ‘천자’가 ‘장수’에게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②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이 죽었다며 원통해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③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사들’은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 |

| | |
|--------------------------|--|
| | <p>④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p> <p>⑤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양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p> |
| <p>정답 해설</p> | <p>⑤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천자는 자신의 과오를 알고 있다. 다만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과인을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p> |
| <p>오답 풀이</p> | <p>① 천자가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는 모습과 '그대는 ~ 살리는가?'에서 충렬에 대한 천자의 놀라움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을 원통히 여기며 통곡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어지는 내용에서 유심은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③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는 유충렬의 슬픔에 모든 군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p>④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를 통해 유충렬이 태자의 모습에 감화되어 천자를 원망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
| <p>문제 3</p> | <p>[A],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
| <p>문제 선지</p> | <p>① [A]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p> <p>②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p> <p>③ [B]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한다.</p> <p>④ [B]에서는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여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p> <p>⑤ [B]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p> |
| <p>정답 해설</p> | <p>③ [B]에서 '주나라 성왕'이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런 말을 말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유충렬의 견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충렬의 마음을 돌려 천자를 돕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p> |
| <p>오답 풀이</p> | <p>① '소장은 ~ 충렬입니다.'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으며, '예전에 ~ 있습니까?'라고 말함으로써 천자의 전행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p> <p>②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p> <p>④ '하해 같은 ~ 풀을 맺어 갠이리라.'와 같이 보답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충렬에게 원망을 풀고 천자를 위해 싸워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p> <p>⑤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울 것을 요청함으로써 충신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p> |
| <p>문제 4</p> | <p><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
| <p><보기></p> | <p>「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의 시련을 겪는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유심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관련된다. 이로 인해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두 과업이 함께 해결되는가 하면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충렬은 영웅으로 귀환한다.</p> |

| | |
|---------------------|--|
| <p>문제 선지</p> | <p>① 유충렬이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은 것에서,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의 이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p> <p>② '천자'가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에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강희주'의 유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p> <p>③ 유충렬이 '강희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p> <p>④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에 가족 위기의 해소가 국가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p> <p>⑤ '남적'을 소탕하고 금의환향하는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p> |
| <p>정답 해설</p> | <p>④ 충렬은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모친을 만나 돌아오게 된다. 이는 국가 위기의 해소가 가족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p> |
| <p>오답 풀이</p> | <p>①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친 유심의 유배가 충렬이 겪은 첫 번째 시련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p> <p>②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가 정한담과 최일귀로 인해 귀양을 간 사건이 충렬이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p> <p>③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한 것은 가족 위기의 해소로,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은 국가 위기의 해소로 볼 수 있다.</p> <p>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에서 국가 위기를 해결한 유충렬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의 영웅으로의 귀환을 확인할 수 있다.</p> |
| <p>문제 5</p> | <p>㉠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p> |
| <p>문제 선지</p> | <p>① 나는 <u>분</u>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p> <p>② 친구는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p> <p>③ 형은 온갖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성공했다.</p> <p>④ 우리 팀이 상대를 큰 차이로 이기고 우승했다.</p> <p>⑤ 삼촌은 병을 이기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였다.</p> |
| <p>정답 해설</p> | <p>① ㉠은 '감정이나 욕망, 흥취 따위를 억누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①의 '분을 이기지'에서 '분'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의미하므로, '이기지'는 '감정을 억누르지'의 의미에 해당한다.</p> |
| <p>오답 풀이</p> | <p>②는 '몸을 곧추거나 가누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p> <p>③과 ⑤는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p> <p>④는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승부를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p>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사회[16~19][법률을 통한 기본권 제한]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본권이 아무 제한 없이 보장된다면, 여러 사람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군가의 기본권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만연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 조문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과잉 금지 원칙에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세부 원칙이 포함되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으로 판단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이 위 헌법 조문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방법의 적절성은 법률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해당 법률이 그 목적 달성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방법의 적절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은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법익의 균형성은 법률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그 법률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 원칙의 검토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 대상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 대안의 존부를 확인한다. 그러한 대안이 부재한다면 심사 대상 법률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 대안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심사 대상 법률과 동일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는지 따진다. 이는 먼저 입법 대안도 심사 대상 법률과 동일한 정도로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추가적인 대가가 필요한지를 따지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대가란 재정 지출의 증가나 심사 대상 법률이 침해하지 않는 다른 기본권의 침해 등을 말한다. 입법 대안이 추가적인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과 입법 대안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실제로 동일한지를 따지게 된다. 여기서 동일함이 확인되면 입법 대안도 심사 대상 법률과 동일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입법 대안이 심사 대상 법률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덜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심사 대상 법률은 위헌으로 판단된다. 다만 심사 대상 법률에 비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소 부족하지만 추가적인 대가가 필요하지 않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입법 대안이 있을 때에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사 대상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릴 때, 과잉 금지 원칙이 항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보호 가치가 비교적 작은 경우 혹은 현실적인 여건상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의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의 금지 원칙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상업 광고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공론장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비해 그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그것을 제한하는 법률은 자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그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기본권의 하나인 평등권은 우리 법에서는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개념인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을 내포하는 개념인 상대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상 차별이 불가피한 영역에 적용되는, 차별을 용인하는 법률은 자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그 위헌 여부가 판단된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C)로,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본권이 아무 제한 없이 보장된다면, 여러 사람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군가의 기본권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만연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1문단은 늘 의식적으로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지문 전체 독해로 봤을 때 첫 문단을 자세하게 읽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매번, 100% 첫 문단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끝까지 읽기 전에는 첫 문단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첫 문단은 정확하게 읽고 간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첫 문단에 제시된 개념이 언제 어디서 중요하게 쓰일지 모르니까요!
- ② '기본권'의 개념이 나왔네요. '기본권'에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이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인데, 여기에 예외사항이 있나 봅니다. 기본권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보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네요.
- ④ 바로 이어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줍니다. 세 가지 경우가 제시되었습니다.
공공복리 / 질서 유지 / 국가 안전 보장
- ⑤ 위의 세 경우에 한해서 필요하다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⑥ 결국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헌법에 따라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C)는 위 헌법 조문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과잉 금지 원칙(C)**이라고 한다. **과잉 금지 원칙**에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세부 원칙이 포함되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으로 판단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이 위 헌법 조문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C)이다. **방법의 적절성**은 법률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C)으로, 해당 법률이 그 목적 달성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방법의 적절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은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C)이고, **법익의 균형성**은 법률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그 법률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C)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1문단에서 특정 목적(공공복리, 질서 유지, 국가 안전 보장)의 달성을 위해서라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볼 내용은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지켜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은 무작정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잉 금지 원칙'은 또 아래의 4가지 세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③ 법률이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위헌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느낌이 오는 학생들 있었을 겁니다. 세부 원칙을 이 정도로 쫓으면 최소한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지요.

④ 다음으로 세부 원칙의 정의를 하나씩 제시해줍니다. 이때 원칙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의 정당성’의 ‘정의’를 봅시다.

‘법률의 목적이 위 헌법 조문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O/X의 판단입니다. 법률의 목적이 공공복리, 질서 유지, 국가 안전 보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따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의’ 안에 ‘판단 기준’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침해의 최소화’의 정의를 봅시다.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것만 읽고는 ‘최소화’의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침해를 해야 ‘최소화’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의’ 안에 ‘판단 기준’이 함께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의 적절성’의 정의를 봅시다.

‘법률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효과적’이라는 표현의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즉 ‘침해의 최소화’와 마찬가지로 정의만 가지고 판단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침해의 최소화’와 달리 ‘방법의 적절성’에서는 판단 기준을 바로 줍니다.

‘해당 법률이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방법의 적절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방법의 적절성’은 위와 같이 판단 기준을 준 것입니다.

그럼 ‘침해의 최소화’는 판단 기준이 어디에 나올까요? 지문을 읽어봤으니 이제 알겠지요. 맞습니다. 다음 문단에 나오니까.

⑤ 반드시 위와 같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로 설명을 하려다보니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했다면 다음 문단을 읽을 때 연결이 한결 수월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침해의 최소화]는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하지?”

⑥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면서 문단이 끝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과잉 금지 원칙의 4가지 세부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 법률의 목적이 위 헌법 조문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2. 방법의 적절성 : 법률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인정
3. 침해의 최소화 :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4. 법익의 균형성 : 법률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침해의 최소화에 위배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 원칙의 검토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 대상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 대안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한 대안이 부재한다면 심사 대상 법률은 침해의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 대안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심사 대상 법률과 동일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는지 따진다. 이는 먼저 입법 대안도 심사 대상 법률과 동일한 정도로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추가적인 대가가 필요한지를 따지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대가란 재정 지출의 증가나 심사 대상 법률이 침해하지 않는 다른 기본권의 침해 등을 말한다. 입법 대안이 추가적인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과 입법 대안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실제로 동일한지를 따지게 된다. 여기서 동일함이 확인되면 입법 대안도 심사 대상 법률과 동일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입법 대안이 심사 대상 법률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덜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심사 대상 법률은 위헌으로 판단된다. 다만 심사 대상 법률에 비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소 부족하지만 추가적인 대가가 필요하지 않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입법 대안이 있을 때에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사 대상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채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문단 자체가 꽤 어렵습니다. 문장 표현이 어려워서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놓치면서 읽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단을 읽는 내내 ‘조건’이 되는 ‘상황’을 계속 따지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도록 쓴 문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 ② ‘침해의 최소성’이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순서대로 제시되었습니다.
- ③ 첫 번째로는 ‘입법 대안’의 존재 여부를 따집니다. ‘입법 대안’이 없다면, 즉 심사받는 법률을 대체할 다른 법률이 없다면 여기서 검토 종료입니다. 심사 대상 법률은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하는 법률로 판단됩니다.
- ④ 반면 입법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대안과 심사 대상 법률이 ‘동일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는지 판단합니다. 이때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둘이 동일하다고 ‘전제’합니다. 여기서 ‘동일하다고 전제’한다는 것은 일단 따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 ⑤ 그럼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지지 않으면 뭘 따질까요? 이때는 ‘추가적인 대가’가 필요한지를 따집니다. ‘추가적인 대가’는 ‘재정 지출의 증가’와 ‘다른 기본권의 침해’ 등을 말합니다.
- ⑥ 입법 대안이 추가적인 대가마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일한지’를 따집니다. 아까 ‘동일하다고 전제’했던 내용이지요. 아까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동일한지 한번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 ⑦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마저 실제로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면, 마지막으로 ‘기본권 침해 정도’를 따집니다. 여기서 입법 대안이 심사 대상 법률보다 침해 정도가 ‘적다면’, 심사 대상 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반대로 입법 대안이 침해 정도가 더 크다면? 심사 대상 법률이 위헌이 아니게 되겠지요.
- ⑧ 여기까지 놓치는 정보 없이 잘 읽었다면, ‘정말’ 잘 읽은 것입니다. 그만큼 정보가 밀도 있게 제시되어 있는 문단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으니, 마지막까지 잘 가야겠지요.
- ⑨ 문단 마지막에서는 일종의 예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사 대상 법률을 법률 A로, 입법 대안을 법률 B로 가정해 봅시다.

(1)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 A > B



(2) B 추가적인 대가 : 필요 없음

(3) 기본권 침해 정도 : A > B

이런 상황일 때에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따지는 과정에서 ‘심사 대상 법률(A)’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1)을 ‘공익’과 (2), (3)을 ‘사익’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이해가 어렵지는 않으나,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특정한 상황을 제시해준 것이니, 문제에서 이 상황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황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3문단 마지막 쪼메 예외 상황 비슷한 것이 하나 제시되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에 남길 수 있겠지요.

한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릴 때, 과잉 금지 원칙이 항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보호 가치가 비교적 작은 경우 혹은 현실적인 여건상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의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의 금지 원칙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C)이다. 가령 상업 광고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공론장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비해 그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그것을 제한하는 법률은 자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그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기본권의 하나인 평등권은 우리 법에서는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개념인 절대적 평등(C)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을 내포하는 개념인 상대적 평등(C)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상 차별이 불가피한 영역에 적용되는, 차별을 용인하는 법률은 자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그 위헌 여부가 판단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채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과잉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예외 상황이네요. 어떤 경우에 ‘과잉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상황① 기본권의 보호 가치가 비교적 작은 경우

상황② 현실적인 여건상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② 이때는 '과잉 금지 원칙'이 아니라 '자의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말을 조금 바꿔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해볼 수 있겠네요.

③ 뒤이어 사례를 제시해 줍니다. 두 개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상업 광고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공론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전자가 후자보다 기본권의 보호 가치가 비교적 작기(상황①) 때문에, 전자를 제한하는 법률에는 '과잉 금지 원칙'이 아니라 '자의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④ 다음은 기본권에 포함되는 '평등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때 '상대적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차별이 '합리적'이라면, 차별이 있어도 '평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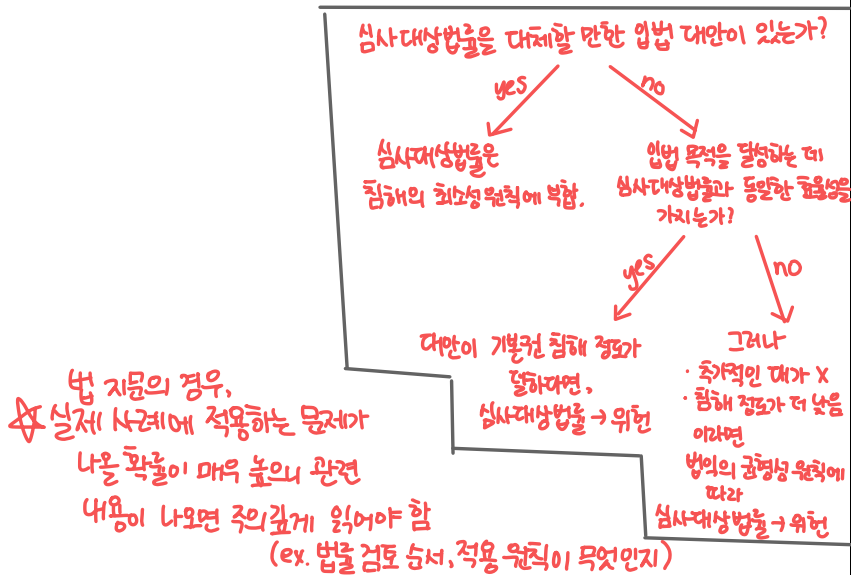
⑤ 이에 따라 '차별이 불가피한 영역(상황②)'에 적용되는, 차별을 용인하는 법률은 '자의 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법률에 차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진짜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기본권(평등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이때 적용되는 원칙은 '과잉 금지 원칙'이 아니라 '자의 금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중세 국어] 롱뵈 바티 일흐기를
[현대 국어] 농부가 밭에 일하기를
 - (나) [중세 국어] 넙금하 아르쇼서
[현대 국어] 임금이지여 아소서.
 - (다) [중세 국어] 시르미 더욱 깁거다
[현대 국어] 시름이 더욱 깊었다.
 - (라) [중세 국어] 흰 쇠 슬지고
[현대 국어] 흰 소가 살찌고
 - (마) [중세 국어]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현대 국어] 우기시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 ① (가): 명사형 전성 어미로 '-기'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② (나): 높임의 호격 조사로 '하'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거-'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는 생략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⑤ (마):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앞에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본권이 아무 제한 없이 보장된다면, 여러 사람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군가의 기본권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만연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 조문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과잉 금지 원

칙이라고 한다. 과잉 금지 원칙에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세부 원칙이 포함되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으로 판단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이 위 헌법 조문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방법의 적절성은 법률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해당 법률이 그 목적 달성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방법의 적절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은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법익의 균형성은 법률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그 법률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 원칙의 검토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 대상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 대안의 존부를 확인한다. 그러한 대안이 부재한다면 심사 대상 법률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 대안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심사 대상 법률과 동일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는지 따진다. 이는 먼저 입법 대안도 심사 대상 법률과 동일한 정도로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추가적인 대가가 필요한지를 따지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대가란 재정 지출의 증가나 심사 대상 법률이 침해하지 않는 다른 기본권의 침해 등을 말한다. 입법 대안이 추가적인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과 입법 대안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실제로 동일한지를 따지게 된다. 여기서 동일함이 확인되면 입법 대안도 심사 대상 법률과 동일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입법 대안이 심사 대상 법률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덜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심사 대상 법률은 위헌으로 판단된다. 다만 심사 대상 법률에 비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소 부족하지만 추가적인 대가가 필요하지 않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입법 대안이 있을 때에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사 대상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릴 때, 과잉 금지 원칙이 항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보호 가치가 비교적 작은 경우 혹은 현실적인 여건상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의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의 금지 원칙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상업 광고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공론장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비해 그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그것을 제한하는 법률은 자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그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기본권의 하나인 평등권은 우리 법에서는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개념인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을 내포하는 개념인 상대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상 차별이 불가피한 영역에 적용되는, 차별을 용인하는 법률은 자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그 위헌 여부가 판단된다.

16-2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